미국 출장 결과 보고서

2014. 6

KRIHS GDPC Global Development Partnership Center

목 차

Ⅰ 해외출장 개요 1

1. 출장개요 1
2. 세부일정 1

Ⅱ 주요 수행내용 3

1. 국제회의 개요 3
2. 1일차 회의: 5월 13일 3
3. 2일차 회의: 5월 14일 8
4. 3일차 회의: 5월 15일 11
5. 회의결과 참석 종합 14
6. Maple Lawn 뉴 어바니즘 프로젝트 사례지역 견학 15

Ⅲ 참고자료

1. 주요인사명함 18

Ⅰ. 해외출장 개요

1. 출장개요

□ 목적

○ 미주개발은행에서 개최하는 Korean Week 세미나 발표 및 참석

□ 출장국가 및 주요방문기관

○ 미국 (워싱턴 D.C)
- 미주개발은행 (Inter American Development Bank: IDB)

□ 출장기간: 2014. 5. 11 (일) ~ 18 (일) (6박 8일)

□ 출장 명단

소속	직급	성명
국토관리도시연구본부	선임연구위원	박재길

2. 세부일정

월 일 (요일)	출발지	도착지	방문기관	업무수행내용	접촉예정인물 (직책포함)
05.11(일)	인천	달라스 워싱턴		- (16:50) 인천 출발 - (15:55) 달라스 도착 - (18:25) 달라스 출발 - (22:00) 워싱턴 도착	
05.12(월)				- 워크숍 준비: 회의자료 검토 및 프리젠테이션 준비	
05.13(화)			-IDB	- 세미나 참석 (제 2세션 발표)	
05.14(수)			-IDB	- 세미나 참석	

05.15(목)			-IDB	- 세미나 참석	
05.16(금)			-Maryland 주 Fulton 시 Maple Lawn 지구	-뉴 어바니즘 도시개발사업지구 답사	
05.17(토)	워싱턴	달라스		-(06:00) 워싱턴 출발 -(08:20) 달라스 도착 -(10:25) 달라스 출발	
05.18(일)			인천	- (14:50) 인천도착	

Ⅱ. 주요 수행내용

1. 국제회의: “한국의 경험: 라틴 아메리카 국가에 대한 교훈”

□ 개요

○ 일시 : 2014년 5월 13일(화) ~ 15일(목)

○ 장소 : 미주개발은행

○ 목적

- 한국과 중남미 국가 간에 개발경험 공유
- 주요 토픽으로 도시 및 인프라개발, 공공행정, 중소기업 지원, 정보화 대응 등 토의

○ 참석범위: IDB 직원, 중남미국가 관련기관 직원 및 발표 토론의 한국 측 참석자

○ 회의진행방식

- 각 토픽별로 한국측은 주 발표자(Speaker) 또는 한국사례를 소개하는 Panelist로 참가
- 패널에서 토의와 더불어 방청석 관계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것으로 진행

2. 1일차 회의: 5월 13일

□ 주요 회의 내용

○ 환영사

- Luis Alberto Moreno IDB 총재가 먼저 한국이 이룩한 경제 사회 발전에 배울 것이 매우 많으며 한국측 참석자들에게 참석에 감사하다는 뜻의 환영사를 함
- 이어서 한국 측에서는 국무총리실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이 위성을 통해 한국의 현지 사무실에서부터 실시간으로 영상 메시지를 전달

. 어려운 가정 형편 속에 가족 부양을 해가면서 열심히 공부하여

지금의 자리에 서게 된 스스로의 인생 이력을 소개하고, 그것을 가능하게 한 한국의 경제 사회 발전 배경과 한국민들의 국민성에 대하여 설명

. 정부의 수출주도 경제성장 전략과 국민 교육열 등이 주효하였으나, 이제는 경제성장 과정에서 등한시 되었던 사회안전망 문제, 복지재정 확보에 치중함이 필요

. 또한 성장 지상주의에서 나타난 비정상적 관행을 고쳐서 펀더멘탈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앞으로의 중요 목표가 되고 있음을 밝히고, 계속해서 사회자본 확충 및 정책 투명성 제고와 일관성 유지, 그리고 공공부문 개혁 및 규제 완화 등에 노력하고 있음을 밝힘

ㅇ 기조연설: USC 대학의 데이비드 강 교수

- 한국이 성장할 수 있었던 요소를 주로 한국의 역사 문화를 중심으로 설명
- 과거시험 제도를 통한 우수 인재의 등용과 국민들의 교육열, 정부 리더십이 중요 요인이 되었다고 주장

ㅇ **첫 번째 세션: 「한국의 고속성장 트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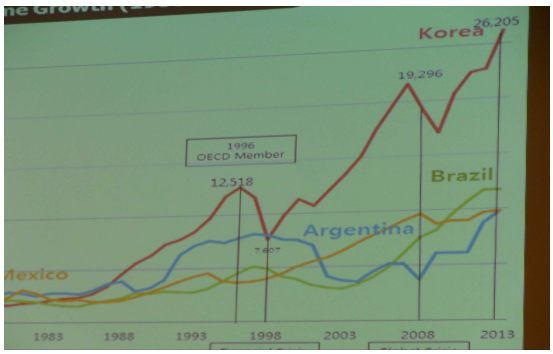
- 좌장은 이 회의를 전체적으로 주관한 Institute for Development의 manager인 안나 마리아 로드리구즈(Anna Maria Rodriguez)가 맡아서 진행(세종대왕과 한글을 포함한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가 깊음)
- 기조 발표자로 서강대 조윤제 교수가 발표

. 한국이 고속 성장을 하여 오늘날의 경제기적을 이루어 낸 데에는 정부의 리더십과 한국인들의 교육열과 함께 당시 국제 환경이 유리하게 작용했던 점도 있다고 설명

. 중남미 국가들이 한국의 경험을 그대로 따를 수는 없지만, 발전의 근본 구조를 이해하게 되면 각국의 구조적 상황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지혜를 찾을 수 있을 것임

- 패널 토의
  . 조오지 타운 대학의 빅터 차(Victor D. Cha) 교수는 한국인의 사회성과 사회 체제 내 의사결정 문화를 언급하면서 서구와는 다른 독특한 부분이 있음을 지적.
  . Autonoma de Nuevo Leon 대학의 Juan 교수는 한글 등 문화적 배경이 한국이 발전할 수 있었던 원동력의 하나라고 함. 세종대왕과 같은 지도자가 일찍이 한국 사회를 발전시켰고, 책임 의식을 가진 우수한 관료들이 변화에 도전해 온 결과로 평가

기조연설: 데이비드 강 교수 (USC)



조윤제 교수: 한국의 경제성장 과정 설명

○ **두 번째 세션: 「도시화와 중산층」**
- 좌장은 IDB의 재정·지자체 관리국장인 빈센트 프레테스(Vincent Fretes)가 진행
- 주 발표자는 하바드 대학 교수인 다이앤 데이비스(Diane Davis)가 주로 자신의 저서를 중심으로 도시화 과정에 그 지역의 문화나 중산층을 유지하면서 도시를 발전시켜 가는 것에 노력하여야 함을 주장
- 패널 참가자로 본인(박재길)이 "도시화과정에서의 정부 정책과 중산층 형성: 한국의 경험"을 발표(별첨 자료 참조)
- 나머지 패널리스트로서는 프린스턴 대학의 Alejandro Portes는 중남미 국가들의 도시화 과정 실태와 그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언급하고, IDB 주택 도시개발전문가인 노라 리버턴(Nora Libertun)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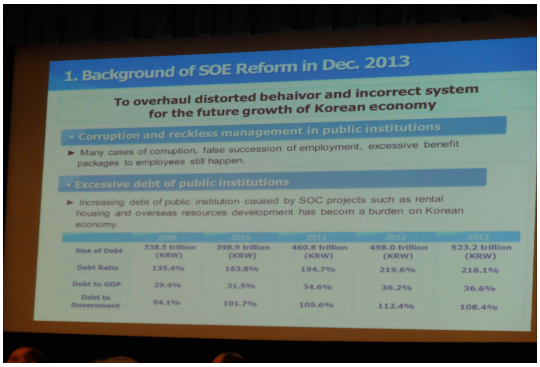
중남미의 도시화가 전반적으로 중산층이 두터워지는 방향으로 오고 있다는 분석 결과를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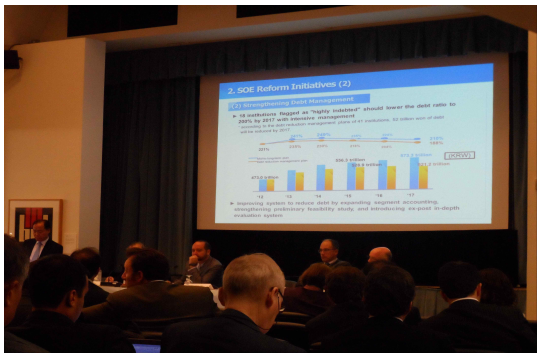
회의장 (IDB 본부 6층 대강당)

프리젠테이션 후 기념촬영

○ **세 번째 세션: 「정부 소유 공공기업의 역할과 발전」**

- 좌장은 IDB의 국가 도시화 부서 소속 전문가인 조지 카우프판(Jorge Kaufmann)이 진행
- 주 발표자는 하바드대 비즈니스 스쿨의 Aldo Musacchio 교수로, 라틴 국가에서 정부 소유 공공기업이 성공한 사례와 실패한 사례를 동시에 분석하여 소개하면서 결론적으로 앞으로 국영 기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
- 패널 참가자로 한국 상황을 프리젠테이션하여 소개한 한국측 조봉환 공공기관혁신국장은 현재 '작은 정부, 큰 시장, 국민편익'이라는 공공기관 혁신의 기본 원칙 하에 중장기 재정관리5개년계획을 수립하여 부채문제 해결과 경영진 평가를 해 오고 있음을 설명
- 패널리스트로의 IDB 내 경제전문가 구스타보 가르셔(Gustavo Garcia)는 공기업 지배구조는 산업정책과 연계되어야 함을 전제로 관련 사례를 분석·소개하면서 민영화하는 방안이 긍정적인 면이 많으나, 다만 민영화하더라도 시장에서 독점하는 구조가 된다면 폐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





세번째 세션: 한국 측의 공공기관 혁신추진 상황 발표

○ 네 번째 세션: 「경제성장과 제도기구의 역할: 한국의 교통 인프라 사례」

- 좌장으로 아르헨티나의 CIPEC 국장인 페르난도 Fernando Straface 가 진행
- 주 발표자인 박현 서울시립대 교수는 한국의 경제성장에 기여해 온 한국의 도로망 관련 인프라 투자와 한국 도로공사 및 정부의 역할을 소개
- 패널 토의자로 세계은행 자문관으로 나와 있는 김재형 박사는 관민 파트너십에 의한 민간의 사회자본 투자에 대한 한국의 제도 장치와 운용을 설명하였고, IDB의 인프라 환경분야 전문가인 Esteban Diez는 라틴 국가의 경우 도로 인프라 투자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장기계획 집행체제나 조직, 제도가 미미되어 있음을 언급. 이에 대해 좌장인, Straface는 국가정치와 지방분권이 큰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고 언급

※ Pararall 세션: 한국의 '새롭게 부상하는 재정지원구조: 소액금융지원제도" 발표

- 발표자 한국의 장민 박사(한국금융연구원)는 한국의 미소금융이나 소액금융지원재도가 최근서민들을 위한 금융지원제도로 발전하여 정착하고 있음을 소개

네번째 세션: 한국 경제발전에 대한 교통 인프라의 역할과 관련 기구 설명

3. 2일차 회의: 5월 14일

□ 주요 회의 내용

○ 다섯 번째 세션: 「ICT 개발 부분」

- 좌장으로 Millicom International Services 부사장 Adrean Scheid Rothkopf이 진행
- 주 발표자는 인천 송도에 위치한 한국뉴욕주립대 교수로 새로 부임하는 James F. Larson 교수가 자신이 이해하고 있는 한국의 정보통신 혁명 과정을 설명, 미국에서는 고어 부통령이 그 중요성을 역설한 바 있으나 실행으로 옮기지 못했는데, 이 시기에 한국은 1995년 초고속 광케이블로 인프라를 깔면서 정보통신 기술을 혁신시켰고, 매스 미디아 시대에서 디지털 네트워크 시대를 열어 오고 있디고 하면서, 이를 한국 사람들이 일상 속에서 정보기술을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영상으로 보여주면서 설명
- 패널 토의자로 IDB의 광대역 플랫폼 조정역을 맡고 있는 Antonio Garcia-Zaballos는 역내 국가와 OECD 국가 간 격차, 역내 국가 간 격차, 도시 농촌 간 격차를 설명하고, 이를 줄여갈 필요성을 역설. 인텔 사의 정보국장 Peter Pitch는 광대역기반시설을 둘러싸고 지난 15년간 경쟁해 온 결과, 전 세계 4개 해저케이블 가격들

이 절반으로 떨어져 세계 32억 인구가 사용 가능하게 되었으며, 이제 투자 주체는 정부가 아니라, 시장에 의해 이루어지게 되었다고 설명

- 한국 성균관 대학의 정태명 교수는 한국의 정보통신기술 변화 구조에 대하여, 초기에는 ICT 발달로 전화보급이 대폭 확충되었고, 1990년대에는 정보통신부 신설과 3+1 정책(교육을 추진하고, 기업수를 늘리며, 컴퓨터 보급을 확대하는 것으로 하면서 기반을 확충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는데, 보다 결정적으로는 이미 ISDN이 설치 된 상황에서도 당시의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여 정부가 주도적으로 민간을 이끌어가면서 투자 위험을 돌파해가는 데 역할을 하여 단위 비용을 120불에서 25불로 내려 가입자를 200만으로 확보함으로써 네이버 등 정보산업분야 기업이 크게 성장하게 되었다고 설명. 정부가 개입하여 기반을 통합한 것이 무엇보다 주효했고, 최근에 와서는 이제 ICT 전략위원회에서도 "지금까지 너무 빨리 달려 왔으니까, 뒤를 되돌아보고 채워야 할 것은 채워야 한다"는 말을 하고 있음

Pararall 세션: 한국측 소액금융지원제도

다섯 번째 세션의 ICT 개발 부분 발표

○ **여섯 번째 세션: 「자본주의 체제를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중소기업의 발전」**

- 좌장으로 IDB 재무시장 전문가 Diego Herrera가 회의를 진행
- 주 발표자는 한국의 중소기업은행 서경란 팀장으로 '중소기업과 기업은행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 한국의 중소기업체 수는 전체

기업체 수의 거의 99%에 이르고, 종사자 수로서도 90% 가까이 됨.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기업은행의 활동과 역사 등을 소개하고, 개도국들은 각기 상황에 맞는 정책과 제도 등의 여건을 정비해 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함

- 패널에서는 Oscar Lindo 엘살바도로 개발은행 총재가 엘살바도르 역시 90% 이상이 중소기업이지만, 경제규모 자체가 작은 점에서 한국과 큰 차이가 있다고 하면서, 개발은행인 BANDESAL은 주요 기업에 대한 개발 활동과 금융을 지원하며, 이와 관련하여 유럽 연합 등으로부터 기금을 지원 받고 있다고 설명, Ayman El Tarabishy 조지 워싱턴대 교수는 정보혁명 과정을 설명하면서 1970-1990년대는 정보, 해결, Cooperation이 키 워드였다고 한다면, 21세기에 들어와서는 지식, 혁신, Collaboration이 키 워드가 되고 있다고 주장. 방청석에서 부터 한국에서 중소기업 정책이 정치로부터 영향을 받지는 않는가 하는 질문이 있었는데, 이에 대하여 중소기업은 어느 쪽이 정치를 하든 간에 살려나가야만 하는 것으로 정치 중립적이라고 하는 데 의견을 모음.

○ 일곱 번째 세션: 「한국과 라틴 아메리카 국가 간 무역상황의 구조적 고찰」

- 좌장으로는 Antoni Estevadeordal IDB 섹터 매니저가 진행
- 주 발표자는 Mauricio Mesquita Moreira IDB 수석경제자문역이 과거 10여 년간 중국, 일본, 한국과 중남미 국가 간의 수출입 비중 변화를 비교 설명하면서 특히 최근에는 한국의 비중이 일본 이상으로 커지고 있는데 의미를 부여
- 패널 토의에서는 외국어대학 국제학부 김원호 교수(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가 한국과 라틴 국가 간 무역 아이템을 중심으로 그 구조를 분석하여 라틴 국가들이 앞으로 수출지향적 구조 로 발전해 가기 위한 방향을 제시. 경희대학교 곽재성 교수 역시 라틴 국가의 상황을 중심으로 한국과의 무역 관계 발전에 필요한 이슈를 제기

○ **여덟 번째 세션: 「한국의 신도시 개발과 라틴 국가에 대한 시사점」**

- 좌장으로는 Emerging and Sustainable Cities Initiative의 총괄 코오디네이터인 Ellis Juan이 진행
- 주 발표자는 한국 LH 공사의 정태영 부장으로 한국의 신도시개발을 전기, 후기의 2단계로 구분하고, 전기는 수도권 5개 신도시 개발의 시기로 주택문제 해결을 경제개발과 연계시켜 효과적으로 풀어 온 것으로 평가하였으며, 외환위기 이후 건설하는 제 2기 신도시는 주거 질을 높이는 측면에서 추진하는 정책으로 설명. 이들 정책 모두 중산층 위주의 정책이었다는 점에서 앞으로는 저소득층 주거 문제 해결이 풀어야 할 과제로 되고 있음을 설명
- 패널로 나선 안건혁 교수는 한국의 신도시개발은 어디까지나 주택문제 해결에서 출발한 것으로 대중교통 기반시설 설치를 전략적으로 같이 포함하여 나름대로 성공했다고 평가, 신도시 개발은 개발제한구역을 넘어서 도시를 개발함으로써 대도시권 성장관리를 하는 하나의 수단이 되기도 하였으며 시간이 지나면서 자족성도 높아져 왔다고 설명.
- 한편 패널의 버클리 대학의 Robert Cervero 교수는 신도시개발을 학문적으로 검토하여 유럽 신도시들(영국, 네덜란드, 스웨덴)의 특징을 소개하고, 동아시아(홍콩, 싱가포르, 한국) 상황과도 비교 연구한 경험을 설명. 직주 균형과 출퇴근 통행문제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검토한 결과를 설명. 또한 Andre Blanco는 라틴 국가가 처하고 있는 스프롤문제와 비지적 개발의 폐해가 심각하여 통근하는 데 무려 2시간 내지 4시간이 소요될 정도라고 이야기 하면서 한국의 신도시개발 방식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

4. 3일차 회의: 5월 15일

□ 주요 회의 내용

○ **아홉 번째 세션: 「전자정부에서 모바일 정부로 발전하기 위한 과제」**

- 좌장으로 IDB 국가 도시화 전문가인 Alejandro Pareja가 진행
- 주 발표자의 한국정보화진흥원 백성호 박사는 한국 사회가 전자정부에서 모바일 정부로 변화하고 전체 사회도 또한 정보사회에서 스마트 사회로 이행하는 것으로 설명. 모바일 정부는 시민이 시민과 정부에게, 그리고 정부는 시민과 정부 간에 실시간 소통하는 것으로, 실제 사례로 불법 주차신고 등 정부에 대해 생활불편 신고를 하는 것을 소개함. 그 밖에 서울 백만 아이디어 오아시스, 치안, 안전, 화재 분야 모바일 서울을 포털 사례로 소개. 정보화진흥원에서 교통상황 등 각 부처별 모바일 앱 개발시 중복 발생 방지에 노력하고 있음을 설명

-패널로서 Eduardo Jaen 파나마 정부혁신청 General Administrator는 파나마가 중남미에서 소득 2위의 국가가 되나 관료주의 폐단이 있어 프로세스 상 규정되어 있지만 의사결정 보다 더 중시되는 상황들이 있다고 함. 국가정부혁신청, 혁신위원회를 설치하고 전자정부마스터 플랜도 2012년에 수립했음. 정부 내 소통에 병목이 생기는 곳을 탐지하고자 하며, 이러한 방향의 모바일 정부에 대해 한국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함. 콜롬비아 CEO 대학 Sandro Jimenez Ocampo 교수는 한국의 경우 정부가 정책적으로 선도하여 핵심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정부의 포괄적 전략이 시민생활 중심에 두고 있는 점 등은 좋은 본보기가 되며, 이러한 것을 벤치 마킹하여 보고타 등에서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IDB의 Miguel A. Porrua 는 20억 인구가 사용 중인 미구엘 스마트 폰은 접속률 20% 수준으로 5년 뒤에는 지금의 한국 수준에 이를 것으로 기대함. 세계에서의 정보화 수준으로 보면 칠레, 파라구아이 정도가 50위내이고 나머지는 100위권 정도임. 방청석 질문에서 디지털 디바이드는 인프라 문제 만이 아니라 문화와도 연관되며, 능력과 지식의 격차 또한 존재한다는 것을 환기시킴.

○ **열번째 세션: 「형평성 있는 성장을 위한 기술직업능력 개발전략」**

- 좌장으로 IDB의 노동시장 경제분야 전문가 Graciana Rucci 가 진행
- 주 발표자로 한국 직업능력개발연구원의 박영범 원장이 발표, 현재 한국은 교육열의 부작용과 함께 지나친 경쟁률 등으로 자살율

이 높고, 행복지수는 낮은 상태에 직면. 바른 교육을 위해서도 기술, 직업능력을 양성하고 우대하는 사회를 만들어 가야할 상황에 있음을 설명.

- 패널로서는 아르헨티나의 사회개발기구 소장 Carlos Tramutola와 칠레의 인적자본혁신센터 Hernan Araneda, IDB 노동시장 부서 책임 Carmen Pages의 세 사람이 각각 해당 국가 및 중남미 전체 상황을 설명:
- 특별히 워싱턴에서 안식년 중에 있는 한국의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송치웅 박사가 한국의 카이스트 창설과 카이스트의 역할에 대하여 발표. 1960년대부터 과학자를 유치하여 과학 기술 정책에 크게 중점을 두고 추진해 왔고 민간과 역할 분담이 점차 이루어져 왔음을 설명
- 또한 패널 리스트로서 Dahlmenn은 한국이 여러 악조건에서도 성공을 이룩해 낸 것을 볼 때, 중남미 국가로서 해야 할 일이 있음을 강조. Benaventee는 “정부의 연속성, 정책의 연속성이 중요하며, 정부 관여가 필요한 것은 알지만 정부가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안하는 편이 낫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함. 정치적으로 추구하는 양적 성과주의도 문제임. 그리고 한국과 달리 정부가 기업의 이익을 그냥 가지고 가기도 함. 제도적으로는 기구의 문제에 대해 혁신을 책임지고 할 사람이 없음, 이에 비해 한국은 제도나 정책이 일관성이 있었고 상설화 되어 있으며, 자원의 분배도 연속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이러한 부분에서 한국을 많이 배워야 함, 중장기의 정책, 전략을 가지고 과학 기술을 혁신시켜 가야 함.
- 특별히 OECD 간부의 한 사람이 나와서 설명: 한국은 과학자 보유가 세계에서 5위 정도로 인적 자본이 잘 확보되어 있는데, 이는 한국이 사회 문화 등 여러 측면에서 발전 요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임. 자원이 부족한 한국이 중남미를 크게 앞서 발전한 점은 지금까지 환경이 중요하게 작용, 이에 비해 중남미 국가가로서는 지금 2010년대의 여건이 다름을 알아야 함. 예로서 중국이 제조업 측면에서는 중남미를 위협하는 요인이 됨

○ 2015년 부산회의 개최 환영 비디오 시청

- 내년 부산에서 회의를 개최할 예정으로 부산 방문을 환영하는 비디오를 같이 시청

○ 폐회사

- IDB 개발기구 본부장(Manager, Institutions for Development) Ana Maria Rodriguez는 폐회사를 통해 005년도부터 한국이 IDB 사업을 시작해 7천만 달러 까지 늘어난 상태이며, 사회 혁신이나 지식공유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다고 말하면서, 실무자간 대화도 증대하고 실용적인 측면에서의 기회도 많아지고, 한국의 관련 개발은행도 기금 등을 지원해 오고 있다고 함. 한국에서 개최하는 2015년 부산 총회를 통해 파트너십이 보다 증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인사말을 함
- 한국측에서는 기획재정부의 국윤철 국장이 인사를 함. 회의 개막시 보여준 '세월호' 조의에 감사드리며, 이번 회의를 통해 패러랠 세션 까지 포함하여 전체 16개 토픽을 가지고 토의하면서 국가간 장벽의 의미가 많이 없어진 것으로 생각됨. 이제 우리 모두 글로벌 사고를 가질 필요가 있으며, 이는 생존하기 위해서도 필요로 하는 것임. 성공 사례, 실패 사례를 다 같이 살펴 서로 배우는 것이 바람직하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그 경험들을 스스로의 것으로 체화할 필요가 있음. 아나 마리아의 많은 도움에 감사드리고 좋은 회의로서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함

5. 회의참석 결과 종합

○ IDB 및 중남미 국가들은 한국을 벤치마킹하여 노력해 가면 경제 성장과 사회 발전을 이룩해 낼 수 있을 것으로 크게 기대하고 있음

- 이미 인프라 투자 및 정보화 정책 등 여러 분야에서 한국의 경험을 활용하고 있으며, 한국내 정부 및 연구소, 대학 등과 관계를 맺으면서 교류를 활발히 전개해 오고 있음

○ 경제사회 발전을 추진하고 이를 물리적으로 담아내기 위해서도 도

시개발, 교통인프라 및 국토관리 분야의 정책 발전과 합리적 투자가 필요한데, 이에 대해서는 중남미 각국의 사회구조와 법 제도 및 정책 체제가 각기 다른 만큼 한국 축 입장에서는 그쪽 전문가들로부터 각 나라별 여건을 충분히 듣고 이해하여 한국의 경험이 현지 상황에 맞게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

○ 우리 연구원의 경우, 이미 GDPC 활동을 통해 교류 협력이 상당히 진행되어 오고 있는 만큼, 이를 바탕으로 개도국 현지에 대한 지식과 연구원 내부의 분야별 지식을 잘 결합하여 중남미 개도국들을 지원해가도록 하는 체제를 보다 발전시키고, 특히 내년 부산 총회 시 우리 원의 참여에 대해서도 미리 아젠다를 예상하여 준비할 필요가 있을 것임

6. Maple Lawn 뉴 어바니즘 프로젝트 사례지역 견학

○ 견학일시: 5월 16일 10:00~12:00
○ 위치: 매릴랜드 주 하워드(Howard) 카운티의 Fulton 시에 입지
- 수도 워싱턴에서 매릴랜드 주도인 볼티모아 시로 가는 사이의 대략 중간 정도 위치에 있으며로 볼티모아 시와의 사이에는 근대에 들어와 신도시로 건설된 콜롬비아가 가까이 있음
- 워싱턴에서 주간 고속도로 95번 및 일반고속도로 29번으로 접근할 수 있음

○ Maple Lawn 커뮤니티는 1990년대 후반부터 미국에서 도시개발의 새로운 사조로 나타난 New Urbanism 정신을 구현하는 개발의 전형적 사례로 볼 수 있음
- 1만 가구 수용의 대단위 도시개발을 목표로 계획하여 순조롭게 개발이 진행 중
- 도시설계의 기본 개념을 과거 미국에서 자동차시대가 되기 전의 보행 중심도시로 개발하여 지금까지 대규모 획지 위주로 개발해 온 것과 차별화하는 도시로 조성
- 혼합용도로 배치함과 더불어 초등학교, 중등학교 및 공공시설이

충분히 보행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계획

- 주택은 공동주택(Condominiums), 타운하우스, Cityhome 등 컴팩트한 도시개발로 주택지를 조성하면서 Manor home, Village home 등도 배치

○ 미국에서 뉴 어바니즘으로 개발하는 전형적인 사례 지역인 만틈 우리 연구원에서도 이 Maple Lawn 지역의 도시개발의 내용과 진행 상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개발의 성과에 대한 현지에서의 평가가 어떻게 나타날지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 볼 필요가 있음

○ 홈 페이지: http://www.maplelawncommunity.com/

전체 배치도: Maple Lawn 지역 개발계획 개요 도면

도시내부 스냅사진

주택 밀집화로 컴팩트한 도시개발을 추진

참고자료_IDB 측 주요 인사 명함